

멕시코 경제학회 총회 주제발표 및 국립대 세미나 발표

-김도훈 선임연구위원(국제산업협력실)

1. 출장 개요

- 출장지: 멕시코 멕시코시티, 티후아나
- 출장기간: 2008년 5월 25일~6월 1일
- 출장자: 김도훈(선임연구위원, 국제산업협력실)

2. 출장 목적

- 멕시코 경제학회 총회 주제발표 및 국립대 세미나 발표

3. 출장 주요내용

1)2008/05/26 (월): 대사관 관저 만찬

□ 주요 참석자

- 대사관: 원종찬 대사, 최기열 상무관, 이장 경제통상 담당 서기관
- 멕시코 대학에서 한국학을 강의하는 한국인 교수 및 대학원 학생 등 4명

- 멕시코측: UNAM대 Alfredo Romero 사회학과 교수 (지한파 교수, 70년대에 한국에서 수학), 성명 미상 여교수 (한국 산업발전에 관심), Lopez 교수 (한국에 관심 지대, 미국에서 수학, 한국 산업발전을 논문 주제로 선택), 외 멕시코 교수 1명

2)2008/05/27 (화): 국립 UNAM대 한국산업발전 세미나

□ 주최 및 주관

- UNAM (Universidad Nacional Autonoma de Mexico: 학생수만 30만명에 이르는 중남미 최대 대학) 경제학과

□ 주요 참석자

- UNAM대: UNAM대 경제학과 학과장 Roberto Escalante Semerena 교수, Alfredo Romero 교수, Lopez 교수, 7-8명 교수 기타 대학 및 대학원 학생 (50명 정도)
- 멕시코 정부: 외교부 Manuel Cataneda Resende 아태담당 과장 및 아태담당 공무원 2명, 경제부 지역통상 담당 공무원
- 한국측: 원종찬 대사, 김영민 공사참사관, 이장 경제통상 담당 서기관, 영-스페인어 통역

□ 세미나 진행

- UNAM대 Semerena 학과장의 환영인사
- 원종찬 주멕시코 대사의 축하인사
- UNAM대 교수(사회자)의 발표자 소개
- 주제 발표 (50분 정도 진행): 한국의 산업발전 과정을 개관하고, 그 중에서도 한국의 수출진흥, 인력양성,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산업정책 추진 등을 강조하였고, 한국의 산업구조가 현재와 같이 심화되어 온 과정을 설명한 후, 한국이 현재 선진국보다는 개도국에 그리고 최종재보다는 중간재, 기계 등을 더 많이 수출하는 국가로 변모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멕시코와의 산업보완성을 강조
- 멕시코 학자들의 질의응답 (30분 정도 진행): 한국 산업발전 과정에서의 외국인투자의 역할, 80년대 이후의 기술개발 중시로 전환한 계기, 한국 산업

발전 과정에서의 rent seeking의 존재 여부, 한국의 인력양성의 성공 요인

특기사항

- 멕시코 외교부가 주제발표문을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, UNAM대 경제학과 학과지에도 발표문 요지를 게재할 예정

3)2008/05/28 (수) (멕시코시티 - 티후아나로 이동)

총회 주관 Cocktail Party 참석

- 한국의 발표 내용을 간단히 설명: 자원도 없고, 가난한 저개발국이었던 한국이 거의 맨손으로 산업화를 시작하여 좋은 인력들을 양성하면서 성공적으로 산업개발을 이루었고, 특히 개도국 중에서는 드물게 보는 심화된 산업구조를 이루었다는 점을 보여주겠다고 설명

현지 ESPN 라디오와 인터뷰

- 한국과 멕시코의 산업발전 수준 비교 → 한국과 멕시코의 산업상의 보완관계 설명 (한국은 상대적으로 부품, 소재, 기계 등에 강하고, 멕시코는 조립 가공에 강점 보유) → FTA를 통해 양국 사이의 산업협력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점 강조
- 한국의 IT 산업발전에 관심: 인프라 및 인력 양성이 성공 요인이었음을 설명

4)2008/05/29 (목): 17차 멕시코 경제학회 총회

2년마다 개최되는 멕시코 경제학회 학술대회 겸 총회

개회세션

- Jose-Luis Contreras (Baja California 주 경제학회 회장) 환영사 (17차 총회 조직위원장 역할 수행): 멕시코가 가진 가공조립 산업만으로는 다음 세대의 먹거리로 부족하므로 멕시코 산업발전을 위한 장기성장 모델이 필요함을 강조
- Fernando Butler Silva (멕시코 경제학회 회장) 축사: 세계적인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 속에 Latin America 국가들이 경제발전과 사회정의를 동시에

추구하는 정책을 수행해 오다가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쳐 있는 현실에서, 아시아 지역 주요 국가들의 성장 경험을 배우는 것이 중요

- Baja California 주 부지사 (General Secretary) 축사: 17차 총회 참석자 환영, Baja California가 가진 경제적 잠재력에 주목해 줄 것을 강조, 특히 한국이 이 지역에 투자한 규모가 큰 점을 언급 (TV 생산에 있어서 이 지역이 세계 생산의 5% 차지)

□ 1세션: 선진국의 경쟁력 제고 경험

- 영국 (Lee Fulger, 재무부, Growth, Competition and Markets Team): 영국의 1997-2007년 사이의 생산성 추이와 정부 정책 설명, 1997년 이전 미국, 프랑스 등에 비해 더 낮은 생산성을 보이던 영국 경제가 이 기간 동안 높은 생산성을 회복한 것은 획기적인 경제개혁이 있었기 때문
- 미국 (Harrison Grey Morison, Institute of the Americas의 IT 분야 과장): 미국 California 주의 IT 산업 발전의 배경에는 동주에서 이른바 IT Superhighway를 구축하는 등 인프라 투자에 힘썼기 때문
- 스페인 (Bernardo Hernandez San Juan, 경제부 자문관): 스페인의 생산성은 1980년대까지 EU 평균을 훨씬 밑돌았으나 최근 EU 평균을 상회하기 시작했고, 특히 이탈리아의 경쟁력 수준보다 높아진 것을 설명

□ 2세션: 아시아 주요국의 경쟁력 제고 경험

- Juan Gonzales Garcia 교수 (ANIDIE 소장, 아시아지역 연구 특히 중국연구에 특화): 아시아 지역의 경쟁력 수준이 높음을 강조
- Carlos Uscanga Prieto 교수 (UNAM 대):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에서 주목해야 할 점으로 ① 이 지역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멕시코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멕시코가 이 나라들의 성장경험을 배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, 한국과의 FTA가 예정대로 추진될 필요성을 언급
- Juan Jose Ramirez Bonilla 교수 (멕시코 칼리지, 아시아연구 센터, 일본경제 전공, 프랑스에서 수학): 21세기에 일본경제가 직면한 도전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일본의 노력을 설명
- Noe Aron Fuentes Flores (전 Jalisco주 경제학회 회장) 토론: 아시아 지역 국가들 사이의 상호의존성에 주목할 필요, 일본은 중국의 개발에 기여하고, 중국이 이번에는 동남아국가들의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, 한국경제

가 가진 잠재력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아쉬워하는 발언

□ 3세션: 멕시코 산업별 경쟁력 검토 세션

□ 4세션: 아시아국가들의 산업정책

- 출장자 (김도훈) 발표: 한국의 산업발전, 특히 산업구조의 심화과정을 설명하고 발표 마지막에 한국이 중간재, 기계산업이 발전하여 개도국에 수출하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개도국 (멕시코 포함)의 조립가공 산업구조와는 대단히 보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
- Jose Salvador Meza Lora 교수 (Baja California 주립대) : 중국의 산업특구의 역할, 그 중에서도 심천 산업특구의 구조 및 성공요인 등을 설명, 멕시코가 미국시장에만 의존하고 있는 사이에 중국은 세계시장 전체를 공략해서 성공했다고 주장
- Mauricio de Maria y Campos 교수 (Universidad Iberoamericana 대): 산업정책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음을 강조, 멕시코가 미국과의 접경지역에서 Maquiladora 산업이 발전하고 있지만 이들 산업들은 멕시코경제보다는 미국경제에 더 의존하고 있다고 아쉬움 토로
- Juan Carlos Moreno Brid 교수 (CEPAL 대표) 토론: 특이하게도 아시아 지역의 성공이 보조금을 잘 활용하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, 산업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, 충분한 보조금 지급 등을 이루기 위해서 정부 재정책확충이 필요하고 특히 개발금융기관(development banking)의 설립이 필요함을 강조

□ 특기사항

- 멕시코 월간경제지 (Proyeccion Economica)가 발표자의 영문 발표문을 스페인어로 번역하여 게재할 예정 ☺